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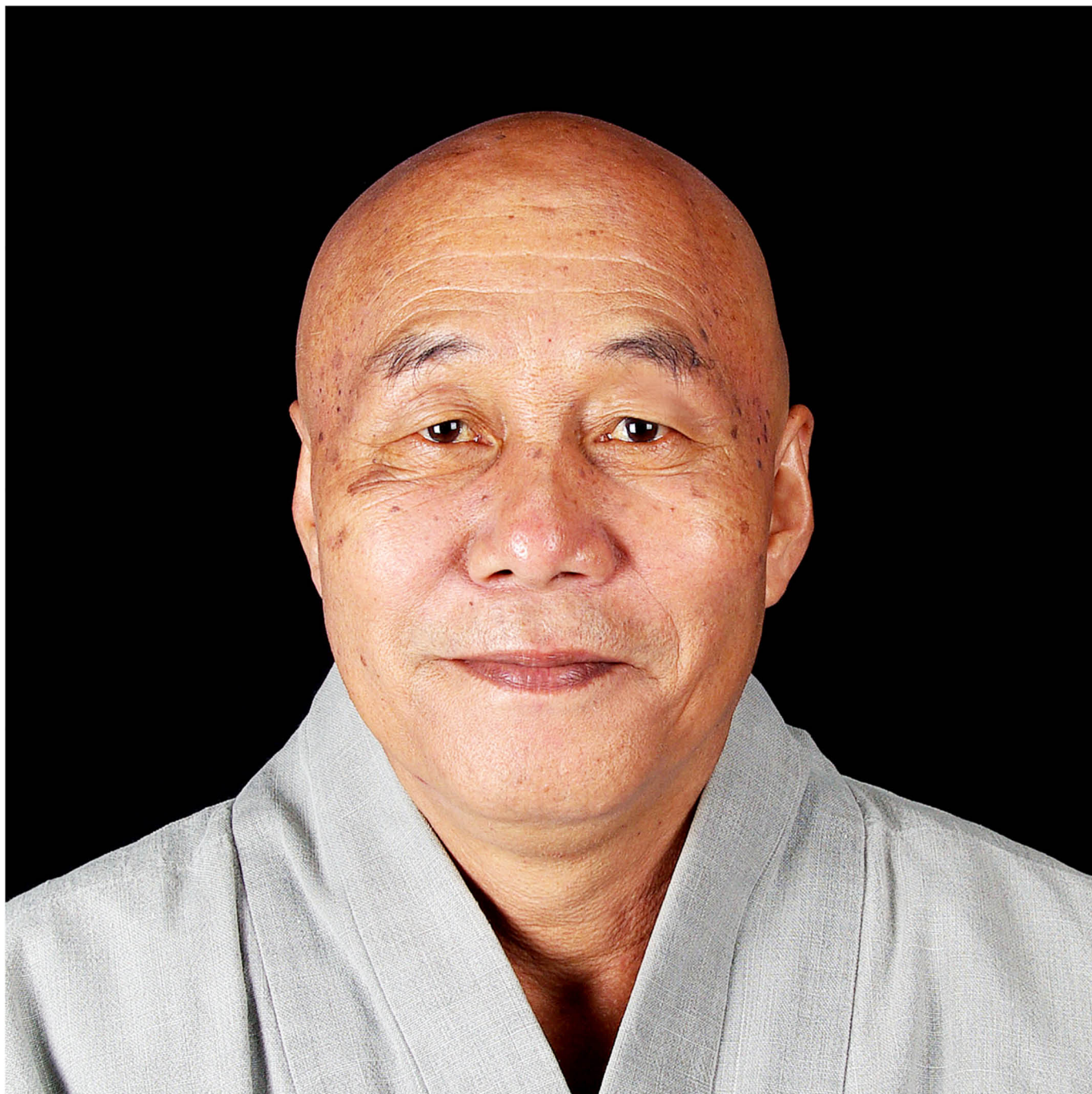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동국사 종결 스님
— 군산중앙교회 박정동 목사 — 청암산오토캠핑장 김덕중 대표
—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영진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오세진 사무국장
— 군산YMCA 이미순 회장 — 그린아트실천연구소 김덕신 작가 — 동명·특수알곤용접 남궁일선 대표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www.maggun.com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매거진군산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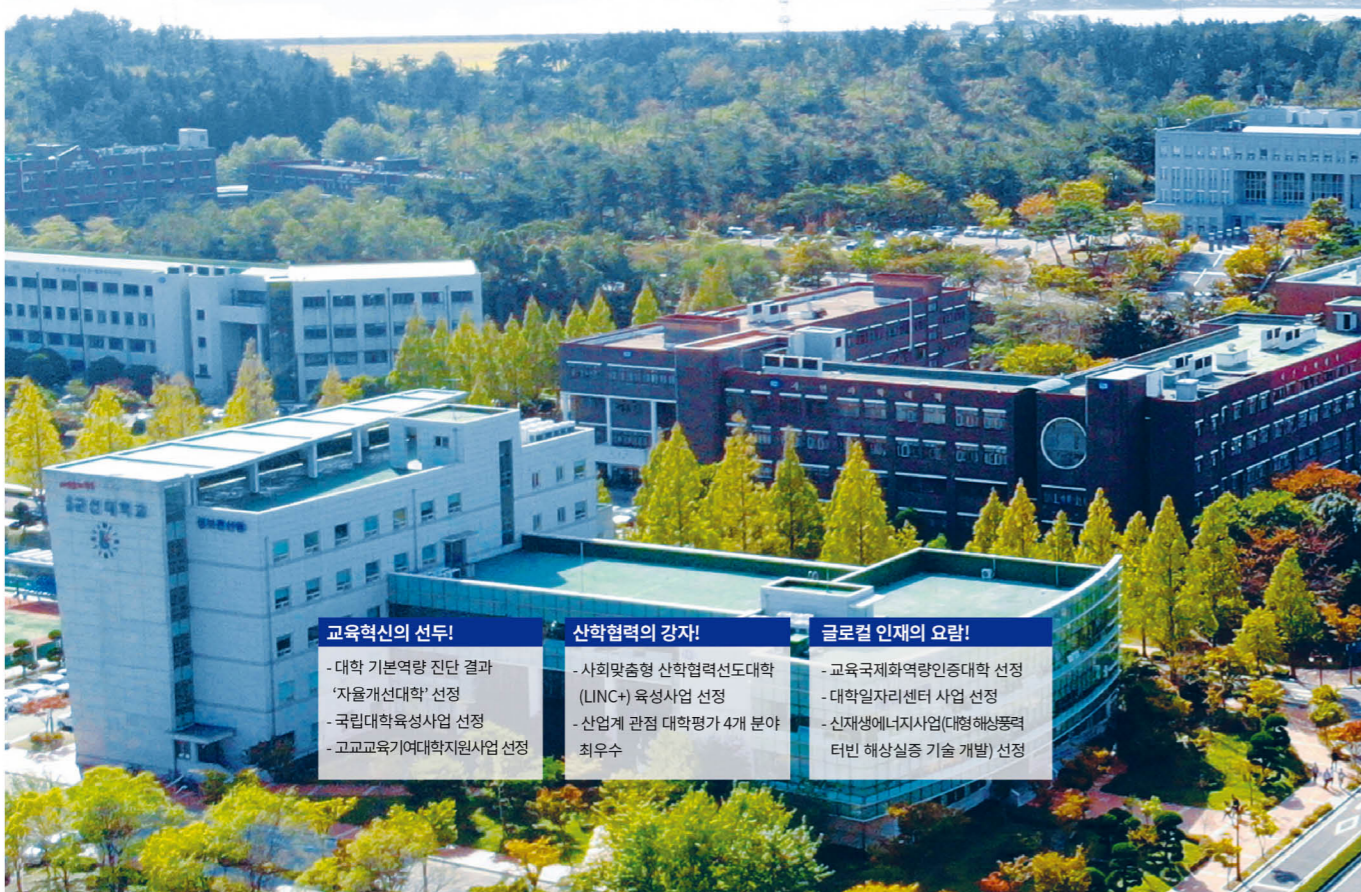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세상의 모든 보험!

최고의 전문가들이 궁금함에 답을 드립니다.

▼
보험 미지급 건
최준호 대표
 010-7467-7483

뇌질환, 심장질환
 자살
 기타 보험사 지급 거절 건



▼
마루 노무사
송충엽 소장
 010-4650-8236

산재 (수협산재) (과로사 등)
 노무관리
 4대 보험 관리



▼
손해 사정사
오창교
 010-4900-1010

개인 후유장애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
 암 진단 (D37.5진단 분쟁 등)
 일상배상/ 영업배상



▼
GA지사
박남혜 대표
 010-2396-5635

보험 증권 분석 / 증권 관리
 보험 청구 / Solution
 상품 선택 조언
 보험보상전문상담



+ **소정운 변호사**
 010-5400-3498

자동차 대인 사고
 장기(보장성)보험
 산재 / 근재

5년 이내 암 진단만 아니라면
 보험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GA지사 박남혜
 010-2396-5635

월10만원소비
브랜드체인지
 +
추천 2인

즐거운 소비가 소득으로 창출되는 라이프스타일!
신뢰의 기업 교원과 든든한 미래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으로
 평생 함께 할 부업을 만나세요.

www.theorm.kr
군산 박남혜 010-2396-5635

KYO
 WON 교원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 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수있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 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 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1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장미칼럼

흑석동 집을 팝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흑석동의 집을 팝니다.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는 계약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12월 1일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연이다.

그는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본인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평생을 전세살이 했으나 어찌다 투기꾼이 되어버린 자신의 개인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난 봄 청와대 관사에서 짐을 뺐는데 끝해보니 결혼 뒤 열한 번째 이사였다. 결혼한 지 25년이니 2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닌 셈”이라면서, “이사가 잦다보니 아내가 시집오며 가져온 장롱은 문짝이 맞지 않고 곳곳이 너덜너덜해졌는데 이삿짐을 운반하던 분이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했다”면서 소시민임을 강조했다.

“얽질러진 물이니 집을 판다고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군산에서 초·중·고를 나와 언론계에서 성장하여 청와대 대변인의 자리에 까지 올라갔던 김의겸. 앞날이 창창하던 그가 느닷없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가슴 아픈 사연의 뒤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의 앞뒤에는 지난 지방선거 군산시장 경선에서 막판까지 혼전을 벌였던 박재만 전 도의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장 경선 판도에서 이른바 ‘권리당원 매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론이 요동쳤다. 경선은 끝났고 그 건설업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시중에는 강임준 시장과 막역한 관계인 신영대 지역위원장에게 맞서 억울하게 경선 패배를 맞본 박재만과 김의겸이 연대하여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관전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상사 사필귀정이다. 김의겸이라는 인물이 군산으로 낙향해서 총선을 뚫는 소식에 대해 거친 반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걸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의 진정성이 이런 저런 따가운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판을 휩쓸 것인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가.

<흑석동 집을 팝니다>라면서 정치를 선언한 김의겸, 그를 향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_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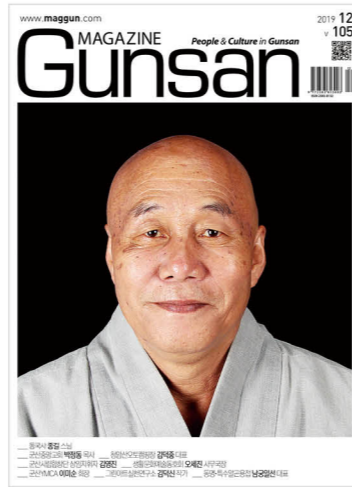
-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곱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곱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시요.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Vol. 105 | 2019.12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장인수	isj1453@nate.com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정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네는 안부_ 10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 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 <약해지지 마>(지식여행 2015)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시바타 도요는 90세가 넘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장례비로 모아둔 돈으로 98세에 첫 시집을 낸 분입니다. 그의 시는 문학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다기보다는 전 생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통찰 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보는 이 누구에게나 울림을 줍니다. 무엇보다 90세라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텐데도 시바타 도요는 꿈을 꾸었고 또 원하는 대로 세인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먼저 의심하고 쉽게 꿈을포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마지막 달, 올해를 더듬어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 동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무슨 꿈이든 꾸어보시고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국내 유일의 일본 식 사찰

동국사(東國寺)
종결 스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일제가 세운 절,
민족혼을 일깨우는
해동 대한민국의 사찰로
거듭나다.

동국사의 주지인 종결(宗杰)스님, 그를 대할 때면 큰 바위 같은 무게감이 느껴진다.

일제가 남긴 유일한 사찰이지만 우리민족혼이 생동하는 역사교육의 보고로 탈바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문화재 수집을 위해 국내외를 수없이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 36년, 그 통한과 울분의 역사를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될진대 당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후대의 가르침으로 남기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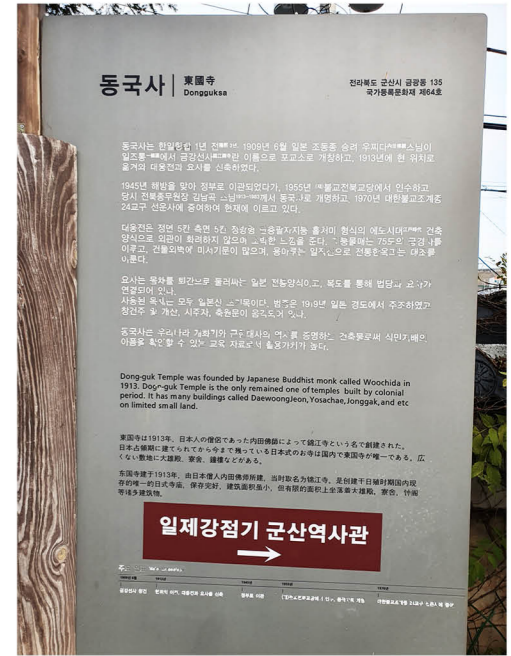


참사문(懺謝文)

사찰 경내에는 1992년도 일본 조동종에서 세운 두 개의 참사문(비碑)가 있다. 각각 일본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으로 새겨진 이 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폭거를 자행했고 조선을 종속시켜 국가와 민족의 말살을 획책했으며 인류애를 펼쳐야 할 중문(조동종)이 오히려 조선 침탈의 첨병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바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 더불어 고통을 받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조동종 해외 전도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내용으로서 아직도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별개로 조동종 종단에서 나서서 참회를 해왔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동국사 기록을 찾아

종걸 스님은 2005년도에 동국사에 부임된 이후 사찰에 관한 기록이 전무함을 알고 혹시 일본에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일본 조동청(조동종 본산)에 찾아갔다. 처음엔 비협조적이었던 조동청에서도 종걸 스님이 계속 버티자 마음이 움직여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비록 한 페이지 분량이지만 동국사의 건립 기록과 초창기 사진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왔다. 이때 알게 된 아오모리현 소재 조동종 운상사(雲祥寺)주지인 '이치노헤 쇼코(一戸彰晃)'스님은 이후 적극적으로 군산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주었고 2011년에는 사절단을 꾸려 동국사를 방문, 이치노헤와 종걸 스님을 중심으로 '대한역사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종걸 스님은 군산시 관련 자료나 사진 한 장이라도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으면 지체 없이 일본을 방문, 적극적으로 손에 넣었다.



동국사의 변천사

동국사 정문 우측 돌기둥에는 차문불문(此門不門)이라는 글씨가 있다. 직역하면 ‘이 문은 문이 아니다’인데 바꿔 말하면 문이 아니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된다는 뜻이다. 차별을 두지 않고 만물을 포용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담긴 말 같다. 그 글씨 밑으로 금강사(錦江寺)라는 음각 글자가 희미하다. 변천사가 궁금해지는 건 당연지사, 종걸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풀린다. 이곳에 사찰이 세워진 것은 1913년. 당초 융희3년(1909년), 우치다(內田佛觀)를 위시한 일본 조동종(曹洞宗)승려들이 금강선사(錦江禪寺)라는 이름으로 개창했던 포교소를 현 부지에 신축 건물을 완공, 이전하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찰로 인정받아 금강사로 명명한 것인데 군산의 일본인 거주민들을 위한 사찰로 기능했으리란 건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 금강사는 8.15해방 후 미군정에서 압수, 정부로 이관되었다가 1955년 들어 전북 중무원에서 매입하게 되며 1970년에 당시 주지였던 남곡(南谷)스님이 ‘해동(海東) 대한민국의 절’이라는 의미로 동국사로 개명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에 편입, 2003년에 등록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국내에 세워진 포교소 및 사찰만 해도 1,000여개가 넘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일제잔재 청산 서류를 타고 대부분 철거되거나 용도 변경으로 자취를 감춤에 따라 동국사 역시 김영삼 정부 시절 철거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조계종 측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 문제로 흐지부지되었던 것은 이제 와서는 다행스런 일이 되었다 할 것이다.



참사비문을 설명하고있는 종걸스님





소녀상의 눈물

사찰 경내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참사문비를 뒤로 하고 서있는 맨발의 소녀상이다. 이 소녀상은 지난 2015년도, 시민들로 구성된 건립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뜻을 같이한 민간인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성사되었다. 하지만 동상 제작 후 막상 건립할 장소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근대역사박물관 뜰과 조선은행 뒤 공원, 구 경찰서 자리, 바닷가 등 여러 곳이 물망에 올랐지만 시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이다. 관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때문인 듯하나 꽃봉오리의 나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무참히 짓밟힌 그 소녀들이 정작 오늘날 내 땅에서도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종걸 스님은 가슴이 메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소녀상은 결국 동국사에 세워졌다. 종걸 스님의 뜻에 다른 것이다. 제막식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고 각계 인사들의 축하 인사말이 이어졌다. 서 있을 자리도 찾지 못했던 소녀의 제막식행사, 그런데 뜻밖에도 일본의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스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자국 내에서 후원을 모집, 1,000만원의 성금을 들고 찾아와 그간 수집했던 자료와 함께 기증하기 위해서다. 이치노헤 스님은 종교를 떠나 인권과 평화, 환경운동 등 인류 행복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의 이사장으로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죄를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여준 것인데 정작 제나라 땅에서조차 홀대받는 소녀상이 눈물을 삼키며 어떤 감회를 가졌을지 부끄러운 일이다.



이완용 친필 족자

참사문비 옆 종각에 매달린 범종(梵鐘)에 새겨진 글귀를 명확히 확인한 사람은 드물 듯하다. '황(皇)의 은덕이 영원히 미치게 하니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복이 일본이나 조선이나 굳건히 될 것이다' 내선일체 야욕을 드러낸 분노어린 범종이지만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 또한 먼 후대에까지 사실을 증명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증거 자료를 없애고 역사를 잊어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경술국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종걸 스님의 생각이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지난 6월 4일, 동국사 아래쪽 대로변에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연면적 1,868m²의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세미나실을 갖췄으며 약 300여점의 일제강점기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이는 대한역사연구소에서 수집하고 있던 약 10,000여점(이치노헤 스님 1,500여점/종걸 스님 8,500여점)의 자료 중 불과 0.3% 분량으로서 전시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 수집품들은 대부분 수탈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과 독립운동가 유물들로서 생전 처음 보는 영상물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희귀 자료들도 있다. 역사관 김부식 관장에 따르면 역사관이 근대역사탐방 코스와 연계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족단위 등 하루 평균 150~2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면서 특히 타 지역 근대역사관련 연구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한다.

전국 최초 이완용 친필과 부인 양주 조씨의 관(棺)뚜껑 전시

역사관에서는 11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이완용의 친필과 전국 최초 그 부인의 관(棺)뚜껑 전시를 갖는다. '平生所學爲何事 後世有人知此心(평생소학위하사 후세유인지차심)' 이라 쓴 글씨는 '평생 배운 바를 어디에 쓸 것인가, 훗날 이 마음 알아주는 이 있을 것이다'란 뜻으로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광복은 영원히 불거할 것으로 봄으로써 일본의 조선 종속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겼던 듯하다.



역사관 전시실 안에서 자료를 설명 중인 종걸스님



또한 부인인 양주 조씨 관 뚜껑은 1979년 증손자 이석형이 이완용과 합장되어 있던 묘를 파헤쳐 유골은 강경천에 뿌리고 모두 불태웠다. 이완용 관 뚜껑은 원광대학교에서 보관했으나 후손 이병도 박사가 소각했고, 부인의 관 뚜껑은 불에 타던 중 누군가가 후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해 반출해 보관하다가 최근 대한역사연구소에 기증한 것이다.

김 관장은 이토록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는 역사관이 전국적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식민 역사를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터인즉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도 들려준다. 다만 전시관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로서 이는 관계 당국에서 현 역사관 건물의 증축이나 별도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종걸 스님, 편견과 벽을 허무는 인간애.

종걸 스님은 경남 함양 생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를 단행, 어느 산사의 행자승이 된 것에서도 일찍이 범상치 않았음이 드러난다. 부친의 설득에 따라 결국 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 섬유공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전공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김동화 박사의 불교학 개론과 법정스님의 시국강연 등 철학에 접근, 삶의 본질 탐구와 성찰 등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며 사후세계에 대한 궁극적 해법을 찾는데 주력했다. 이후 원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도 들어 그는 결국 내장사로 다시 출가, 본격적인 승려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도 그가 존경하는 인물은 중앙승가대 명예총장이신 종범스님이다. 한편 인간적으로는 거창고등학교 당시 목사이자 교장이셨던 전영창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고 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베 감옥에서 1년간 수감 전력도 있는 그 분은 평소 제자들에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가라’ 등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가르침을 주셨다. 돌이켜보면 이는 천박한 시류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떳떳함이 결국은 행복을 준다는 말씀이었던 듯한데 그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 중에는 지금도 사회에 나와 살아 보니 선생님 말씀이 너무 옳았고 가슴에 와 닿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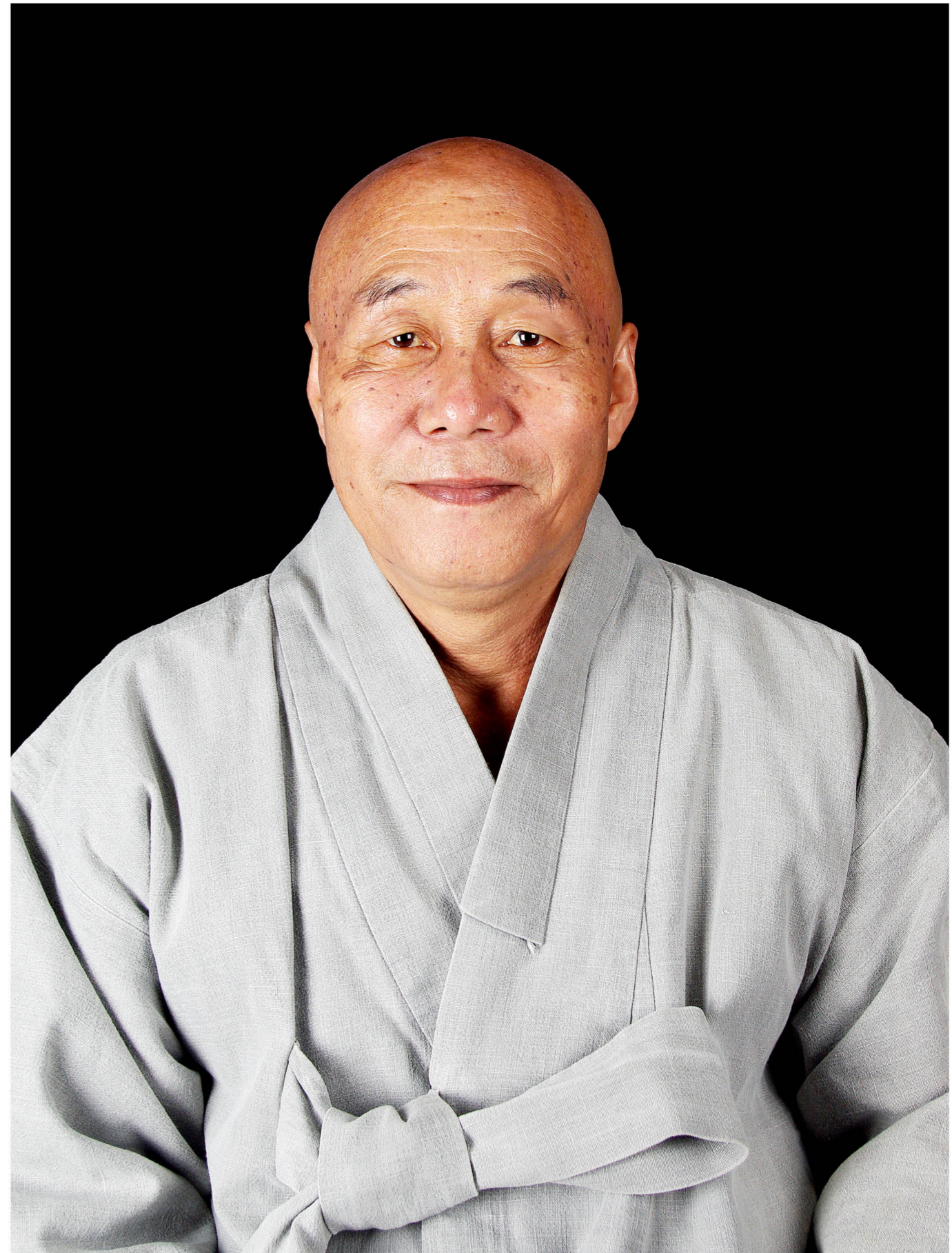
스님은 내장사에 있을 당시 기독교 장로한테도 자신의 신장을 이식하는 보시를 할 정도로 종교를 뛰어넘는 인류애 일화를 남기고 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평화와 사랑, 자비와 헌신일 진대 자신의 종교 도그마에 빠져 벽을 쌓고 편을 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서 참다운 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그런 연유로 종교 간의 소통과 포용은 스님의 숙원이었다. 그래서 9년 전 국내 대표적인 4 종단(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이 함께하는 군산평화합창대를 창설함으로써 올해로 9회째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가진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뜻이 확산되어 더 큰 화합이 다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일깨우는 일화를 잊지 않는다. 1910년~1945년까지 익산에 머물던 일련종 소속의 오하시(大橋)스님이 일기 형식의 책에 기록한 섬뜩한 글 때문이다. 당시 오하시는 익산의 땅 수천 평을 사들여 수탈에 앞장 선 인물로 알려지는데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일렀다. “해외재산환수법이 통과되면 익산에 두고 온 내 전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이 법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끝까지 밀어라”

그러면서 종걸 스님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불행의 역사는 또 되풀이 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식민지배 당시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그 뼈저린 역사를 통하여 과연 무엇이 잘 못됐고 반성해야 될 것인지를 반추하고 또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각오가 필요한지를 일깨우기 위해서란다.

이제 스님에게 남은 꿈은 군산역사관이 제대로 된 규모로 면모를 일신하여 서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10,000여점 자료를 모두 전시하는 것이다. 지금도 평소 이치노혜 스님과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앞으로 더 얼마나 분량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말처럼 36년 일제 암흑기가 한낱 구전 신화가 아닌 실제적 역사로 남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만이 답이기 때문이다.

문화재 수집에 대한 집념, 열정과 더불어 평소 사찰 개,보수나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사 등에 있어 모든 육체적 작업을 몸소 앞장서서 행하는 종걸 스님, 그래서 비록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아직도 강건해 보이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국사
군산시 동국사길16(금광동135-1)
063-462-5366

군산중앙교회 박정동 목사

글 | 이진우(발행인)
jay0810@hanmail.net



군산중앙교회는 사정동에 위치한 72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회다. 1947년 4월 설립되어, 1982년 5월에 중앙로 1가에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1999년에는 사정동 25번지에 5400평의 대지 위에 고딕식 교회당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아울러 군산중앙교회는 지역 내 기독교 어린이 교육에도 관심을 두어 1994년에 중앙 몬테소리 선교원을 개원하였고, 2006년에는 현 교회 위치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면서 어린이집으로 바꾸었다.

박정동 담임목사는 중앙교회의 7대 목사로 2015년도 10월에 부임해 현재까지 교회를 섬겨오고 있다. 그를 만나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개인 목회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반갑습니다. 군산과 어떤 인연이 있어 중앙교회에 오시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 군산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으로 서울에서 자라나 서울에서 대학과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곳도 서울이고 직장도 교회도 서울에서 다니다가 1993년 외국으로 나가 22년간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면서 유학과 해외 목회활동을 하였습니다.

2014년 귀국하여 서울의 모교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 침례교 신학 공부를 하고 침례교 목사로 활동했던 저에게 총신대학교에서 장로교 목사로서 편입목회학 과정이 개설되어 수업을 받던 중, 같이 수강을 하던 군산지역 목사의 추천으로 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연고의 군산에 뜻밖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 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동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간을 그보다 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의 2개의 대학에서 이미 문학과 경영학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문학으로는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이수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목회로 소명받은 이후 일반적인 목회보다는 음악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서 세 번째 대학으로 음악대학에서 성악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시작한 음악이라서 모자라는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학공부도 해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 음악목회학과 신학으로 유명했던 'SOUTHWESTERN'이라는 미국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음악목회학 전공으로 음악석사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성경 언어 중심의 신학 석사과정까지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적인 신학공부를 좀 더 하고 박사과정을 하려고도 했으나 목회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의 학위과정을 하지 못하고 목회의 길로만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데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 신앙 배경과 함께 언급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인 1928년도에 성결교신학교를 나와 국내 선교 활동을 하면서부터 온 집안이 기독교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경교육과 교회 활동을 해왔고, 할머니는 저를 목회자로 키우고 싶어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평범한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했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1988년 무렵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운 지인들의 갑작스런 죽음을 경험하면서부터입니다.

건강하던 부친이 암으로 1년 만에 사망했고, 처형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앞두고 의사사고로 사망했으며,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 큰 사업 성공을 눈앞에 두고 뇌출혈로 사망하면서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친의 암 투병을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길지 않은 나의 인생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후 장기간의 특별 산상기도를 통해 진정

목회자로서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설교자로 선다는 것이 아직은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통해 음악 목회를 하리라 생각하고 이후 음악대학을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가서 음악목회학 과정과 신학과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밟는 가운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설교 가운데 먼저 제 자신이 큰 열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듣는 청중들도 제게 설교자로서 은사가 많다고 칭찬도 해 주셨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시는 것은 교회음악가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와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주로 담임목회의 설교 사역을 감당했고 아울러 음악사역도 함께 해 오게 되었습니다.

-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음악회를 열고 있고, 예배시간에 직접 찬양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여전히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음악이 제가 받은 소중한 은사이다 보니 설교자라고 해서 그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중이라든지 특송시간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교회 정기음악회 때 출연을 하기도 하며, 찬양 선교 봉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에는 극동방송에서 50분 유빌라테 데오라는 찬양과 말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는데, 교회일이 너무 바빠서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찬양은 제 삶의 한 부분이고 찬양사역은 여전히 제 주요 관심사역입니다.

저는 과거 한국에서 음악대학에 다닐 때 당시 재학하는 음악도들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며 음악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실정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목적이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교회 일을 하던 음악인이 많았던 게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믿음도 없는 자들이 영혼의 고백없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높은 기교로 찬양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혹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악인들을 진정한 찬양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악대학 시절부터 동료들에게 신앙상담과 신앙 토론 등을 많이 했고 찬양예배도 함께 다녔습니다.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사역할 때에도 음악인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제가 섬겼던 쾰른한빛교회는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쾰른한빛교회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음악인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을 일반 음악가가 아닌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런 후에 신실한 찬양자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다양하고 최선의 준비를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음악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예배가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제가 한 해 100명의 음악인을 잘 양육하면 장차 100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찬양자들을 잘 양육해 내야 합니다. 이제 군산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많은 찬양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안에 있는 음악인들도 도와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찬양의 일꾼이 군산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받은 찬양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 1년에 2~3번 큰 정기 음악회를 하여 지역사회에 이웃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쾰른 한빛교회의 음악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쾰른의 모든 시민들이 고대하는 전통적인 범시민음악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매주 예배를 마치면 음악인들을 함께 병원과 호스피스센터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찬양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번의 절기에는 도시 안에 병원, 양로원 등 약 10군데의 기관을 방문하여 지역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와 2012년도에는 합창단, 솔리스트, 기악연주자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여 받은 찬양의 은사를 풍성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군산에 와서도 음악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이 지방이다 보니 음악가들이 많지 않아 그들

이 각 지 교회를 섬기기에도 부족한 형편이니 교회 자체만으로 독일에서와 같은 활발한 찬양 사역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전문 음악인들과 찬양의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음악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다양한 음악을 도입했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를 보면 실용음악과 가스펠 찬양 위주의 찬양이 대세인 듯한데, 저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모든 세대가 함께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연령층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찬송가와 가스펠송, 전통 클래식과 현대 실용음악이 함께 어울려지는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과 설교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그날의 절기와 설교 주제에 맞추어 통일성을 이루는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내용에 맞는 찬양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훨씬 더 청중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게 되고 오래 기억되게 됩니다. 따라서 찬양을 설교 가운데 도입하기도 하는데, 제가 부르든지 어떤 독창자가 하든지 혹은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찬양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중간중간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부임 때부터 중앙교회가 군산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위해,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음악 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음악인들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공연에 음악인들을 쉽게 초청할 수 있었고, 교회당과 주차장이 음악회장으로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함께 봉사함으로 이 큰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0월 제가 이곳에 부임한 첫 달부터 매월 정기 음악회가 진행되다가 2018년부터는 일 년에 4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교회 정기 음악회는 군산지역에 좋은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아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며 문의해오고 있고, 익산, 전주, 김제 등 인근 도시의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기 음악회 때마다 굴지의 유명 찬양자들을 초청합니다만 아울러 꼭 지역에 있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도 함께 초청하여 음악회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범 지역 잔치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음악 사



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군산의 선교과 기독교 문화 보급이 더 왕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처져 있는 이 지역 이웃들에게 큰 기쁨과 활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예배당이 너무 예뻐요. 군산중앙교회 자랑 부탁드립니다.

넓은 대지에 전통적인 고딕식 교회 건물,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교육시설, 잔디 축구장, 큰 주차장, 주위 경관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많은 분이 찾아와 사진도 찍고 방문 견학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가 있었던 유럽의 교회를 닮아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웅장한 교회인데 사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채가 없고 재정 자립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재정으로 선교와 구제 그리고 지역 학생들의 장학 사업도 활발히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 많지 않은 인원으로서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는 장로님들을 위시한 온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막연한 교회 성장을 기대하면서 너무 힘에 겹게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로 허덕이다가 정작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당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 말씀하라고 하니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당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혹은 교회당의 웅장한 규모와 외형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멋진 교회당이 전도의 긍정적인 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당에 넓은 주차장과 운동장,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 등을 주신 것에는 감사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다해 교회건축을 했고, 많은 물질과 봉사로 섬기고 있어도, 이 교회는 우리만 사용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당과 시설이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넓은 주차장도 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미 지금도 타지로 떠나시는 분들이 마음껏 주차하시고 다녀오시는 '군산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까?

앞으로 중앙교회는 지역사회에 나누어 주는 교회, 모든 지역 주님이 편히 방문하여 산책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교회, 지역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로 자리매김 하기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설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될까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는 심판과 구원이 개인과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댓가로 주어지는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절망적인 고리를 끊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

들에게 복음보다 더 절실한 설교주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각 시대의 사건과 인물과 기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연결하여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저 역사의 어떤 시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는 역사적 자료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대는 변해도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사건과 인물과 기사가 신약의 복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성경의 모든 시대의 말씀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영상자료와 관련 찬양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 부족한 시대입니다. 설교시간에 최대한 청중들을 집중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자료와 매체를 동원해서 설교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게 될 때 설교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 교회가 72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보다 교세가 훨씬 컸었던 적도 있었고, 한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군산중앙교회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등하고 나누어지고 상황이 한국 교회 전체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교회가 갈등을 이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 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막고 일치와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주제는 목사에게 책임감과 아픔이 동반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던 도중에,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교회의 머리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목사나 어떤 중직자가 서로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교회 재산을 사유재산화합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교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설립멤버나 중직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목사를 고용하여 자기들이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방향과 재정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머리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스스로 머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의 돈과 권력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남의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교회 안의 돈과 권력으로 인해 더 심한 쟁탈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준비된 시설과 인력으로 더 좋은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큰 교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이 많이 생기고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것을 누가 차지하냐 하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목사나 중직자나 모든 교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세워진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은 제쳐두고 그들이 서로 주인 자리에 앉아 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외면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인 듯하지만, 그 내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놀이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여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을 막기 위해 법과 질서를 세우고 재발방지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우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법과 질서가 있던가요? 누가 목소리가 크냐 누가 돈을 많이 쓰냐 누가 끈질기게 버티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간에,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 간에, 교인들이 다 떠나는 말든 간에 스스로 교회의 주인 자리와 교회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항복이 없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다 허물어질 때까지도 자기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에 몸 담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신앙의 삶 속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나 분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입으로 사랑과 공의를 외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치와 사랑을 이루





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교회에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안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도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세상의 왕이지만 세금을 내는 일에 대해 부정하거나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근로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다른 모든 근로자처럼 나라에 세금을 바쳐서 나라가 운영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보는 종교인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교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한 목사가 정치적 집회를 개최하고 묻지마 현금까지 걷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갖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를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들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퇴색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의견으로 옥신각신 한다든지 교회의 어떤 공식 직함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특히 삼일운동의 중심이 된 일 등을 거론하면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의를 앞세워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실천신학자였던 본회퍼라는 분은 교회가 나찌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 신념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의 압박속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의를 말할 수 있었나요? 감히 일반 백성들이 총칼 앞에 정의를 외칠 수 없었습니다. 독일 또한 당시 나찌의 권세 아래에서 또 얼마나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세상이었기에 그때 교회 밖에 앞장설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의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그때와 사뭇 다릅니다. 온 국민이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말한다고 구속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정치를 말하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곳에 뜻을 두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앞장서면 됩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본연의 일을 제쳐 두고 정치의 현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을까요? 정치인들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신분으로 앞장서서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정당과 함께 뜻을 모아 일을 한다면 목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정당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입니다. 그러나 교회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목양을 위해 교회에 세워진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우신 분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치를 하고 싶다면 목사의 신분보다는 정치인의 신분을 달고 나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기독교가 이 나라에 앞으로 기여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교의 사회참여 비중을 가능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천주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200년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나라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계상 국민의 1/4이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의 사회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가장 많이 사회참여에 앞장섰습니다.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 때에 병원을 세워 국민을 돕고, 학교를 세워 국민을 깨우치고, 재화를 들여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세상에 소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기독교는 모든 계층에 빨리 수용되었고, 나라의 부흥발전과 더불어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기독교가 자기 내부의 성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배금주의가 교회 내에서도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교회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대거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구제와 봉사의 가장 앞장서는 곳이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천주교는 기관이 함께 해서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가 합해서 통계를 내면 어떤 종교단체도 따라올 수 없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기독교 전체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목사는 하도 욕을 먹는 통에 어디 가서 목사요 하고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과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그때처럼 더 많은 사회참여에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전도가 다시 왕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모든 삶과 피를 다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가진 재화와 인력과 능력을 세상을 위해 써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교회보다는 낮은 데로 넓게 퍼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 구현에 솔선하여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의 1/4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이 모든 정치 경제의 기관 모든 산업과 교육의 현장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사회참여 중 가장 우선적인 사회참여는 바로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중질서를 지키는 것,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 뇌물 주고받지 않는 것, 부정행위 하지 않는 것, 정직한 말을 하는 것, 모든 사람들과 평화에 힘쓰는 것 등등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그 날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확장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유쾌하지 못한 질문에도 정성 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존경받는 교회로 나날이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군산중앙교회
군산시 번영로 330
063-452-6611

오토캠핑과 글램핑을 한꺼번에

가족단위 캠핑의 중심 '청암산 오토캠핑장'

김덕중 대표

글 | 장인수(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부국장
isj1453@nate.com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청암산 오토캠핑장'

청암산 자락에 위치해 맑은 공기는 물론 도심과도 가까워 다채로운 군산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가족 단위의 캠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재 개장해 캠퍼들을 유혹하고 있다.

옥산면 남내리에 있는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오토캠핑장과 큐브 글램핑 5동, 방갈로 글램핑 5동, 일반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캠핑장 시설이용료는 캠핑장 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 까지다.

특히 오토캠핑장은 큐브모양 글램핑이 5동으로 1, 2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썸질방도 있다는게 장점이다.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그런지 편백나무 향이 가득해 숲속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바닥도 전기장판으로 되어 있어 한겨울에도 캠핑하기 좋다. 올 말일까지는 모든 글램핑 시설 이용이 비수기 요금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특별 행사를 하고 있다.

캠핑장에 오면 강통열차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모래놀이터도 만들어 놓았다.

캠퍼들이 느끼는 장점으로는 개별시설마다 수도시설과 오수관이 빠져있어 시설 이용이 탁월하며 공동 이용장과 글램핑시설에서는 24시간 온수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다목적 광장에 족구장과 농구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위탁을 맡은 (주)삼성종합물류 김덕중 대표는 캠퍼들의 즐거운 추억 제공을 위해 피서철 물놀이장,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마을 농장 체험, 숲속 음악회, 지역명소 투어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즐겁고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 개장을 위해 군산시는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캠핑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편익시설 설치, 캠핑사이트 확장 등 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또 민간위탁자인 삼성종합물류에서도 약 3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캠핑장 시설 개선으로 더욱 더 많은 캠퍼들이 캠핑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캠핑장 이용은 인터넷 예약시스템(<http://www.cheongamsancamp.co.kr/>)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이후에는 다음 달 예약을 사전에 할 수 있다.

군산 최고의 관광지와 어울린 가족단위 캠핑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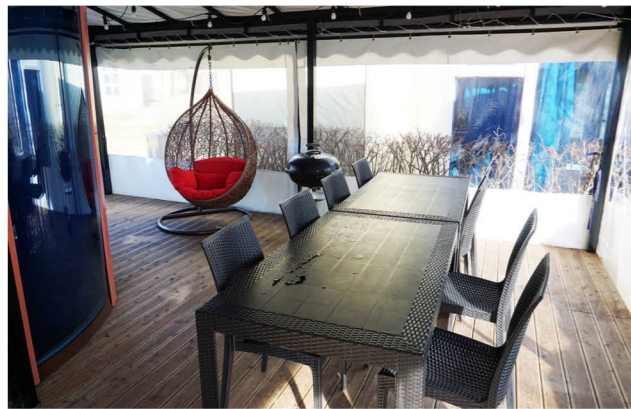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주변에 위치한 군산지역 최고의 수변을 자랑하고 있는 군산호수를 끼고 있는 청암산 자락을 끼고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군산 철길마을을 비롯한 군산시 근대역사 거리가 위치해 있어 캠핑과 지역 역사문화를 함께 체험 할수 있는 새로운 캠핑문화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위탁을 맡은 김덕중 삼성물류 대표는 재 개장과 함께 산북동 본사에서 제작한 원형 글램핑(유리 방갈로)를 배치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캠퍼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큐브와 원형 글램핑은 언제 어디서나 캠핑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도 캠핑장을 찾아 아늑하고 즐거운 캠핑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비큐 시설까지 갖춰 가족모임은 물론 친목모임이나 회의, 연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원형 글램핑의 경우 김덕중 대표가 설계에서 부터 제작까지 꼼꼼히 챙기며 자체 제작과 생산과정을 거쳐 자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캠핑장에 접목, 두가지 효과를 특특히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관광레저 만큼 유행히 빠른 것은 없다
며 자연속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먼저 알고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핑과 함께 군산지역내 문화유산과 관
광지를 접목해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캠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 부터 사랑 받는 최고의 캠핑장
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포부다.

앞으로는 주중 캠퍼들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
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캠핑장이 단순한 캠핑을 목
적이 아닌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
이다.

예약문의 : 063. 465-3357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캠핑파크



청암산오토캠핑장



NAVER

청암산오토캠핑장

검색

www.cheongamsancamp.co.kr



청암산오토캠핑장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50984사면 방내리 737
이용문의 : 063. 465-3357



김영진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듣는 사람이 행복한 합창’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음악 지향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김영진 상임지휘자

그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음악인’이다. 유년시절부터 교회 성가대 활동을 했고, 학창시절 각종 합창대회에서 학교 대표로 출전했다.

김영진 제8대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음악인으로서 마흔 여섯 해를 살아 왔다. 한 사람 한사람이 모여서 내는 화음에 끌렸고, 나의 소리를 조금 양보하면서 남들과 함께 호흡하는 합창에 빠졌다.

그는 합창을 하면서 양보하는 미덕을 배웠고, 그만큼의 행복을 느꼈다. 비록 연습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완성된 무대에서 나오는 하모니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공연이 끝난 후 청중들이 보내는 박수 소리, 다음에 또 오겠다는 한 마디 한마디가 그를 춤추게 한다. 김영진 상임지휘자는 ‘듣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그만의 음악 길을 열어가고 있다.

성가대에서 키워 온 꿈

김영진 상임지휘자는 유년 시절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다. 자연스럽게 찬양, 종교음악을 접했다. 중학교 재학시절 교내 합창대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은 '목동의 노래'는 아직도 그의 기억에 남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한 합창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 전교생 중 딱 두 명만 나갈 수 있는 무대였다.

어느 날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지휘자님이 '음악을 한번 배워 보라'고 권유했다. 피아노를 전공한 친누나도 동생의 음악 입문을 권유했다.

김 지휘자는 노래와 지휘를 사랑한 학생이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롤모델인 지휘자님을 보며 속으로 '나도 지휘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그는 서울시립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문사 과정(합창지휘)을 졸업했다. 성악을 배우는 중 지휘공부를 병행했다. 김 지휘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힘든 점은 있었지만 하고 싶은 공부인 만큼 재미있게 임했다"고 말했다.



2016 크리스마스



오전11시 부라보콘서트



한복 공연

2016 크리스마스



김 상임지휘자는 전문사 전체, 신입생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며 합창지휘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여러 사람이 내는 하모니

혼자서 내는 멜로디와, 여러사람이 내는 화음은 각자의 매력이 있다. 솔로 무대는 연주자 본인의 개성이 부각되고, 합창은 한 사람 한사람이 따로 또 같이 부르면서 화음을 만들어 낸다.

김 상임지휘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지는 화음이 확 와닿았다고 했다. 노래 부르는 순간 화음이 한데 어우러져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같이 부르는 화성과 화음, 그걸 지휘하는 과정이 큰 매력으로 다가 온다고 말했다.

대통령배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최연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각종 전국합창경연대회 및 지휘 콩쿨에서 수십 회 수상했다.

2010년 광명시립합창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이후 30여회의 정기공연과 6회의 해외초청연주, 다양한 기획공연 및 크고 작은 음악회를 100회 이상 기획·지휘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 문화예술 유공훈장(2회)과 경기도 도지사상, 경기음악상, 경기예총 공로상 등을 수여받기도 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음악을 접하면서 듣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들의 에너지가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중들이 즐거워지려면 연주자들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와 청중은 무대를 매개체로 소통을 합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 행복한 연주’를 지향한다. 하나되는 것과 양보를 중시한다. 사람마다 고유의 목소리가 있고, 이것은 성악에도 적용된다. 40여 명 이상 되는 합창단원들이 자기 소리를 조금 양보하면서 남들이 내는 소리를 같이 내 주며 화음이 만들어진다.



군산시립합창단 위촉식



군산시립합창단 위촉식



“듣는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노래를)부르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해요. 무대 위 연주자의 에너지가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마인드로 연주에 임하냐에 따라 무대 너머 청중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파되기도, 안 되기도 해요.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지려면 무대의 연주자들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와 청중은 무대를 매개체로 소통을 해요.”

노래에 실어 보내는 한 줄기 희망

그는 군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서의 첫 행보인 12월 취임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 처음 선보이는 곡은 하이든의 ‘테데움’과 ‘불안한 시대의 미사(벨슨 미사)’이다.

김 상임지휘자는 두 합창곡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와, ‘불안한 현 시대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테데움은 경축일에 연주하는 곡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됐어요. 불안한 시대의 미사는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이 한창이던 1798년 작 곡되었어요. 영국 벨슨 제독이 나폴레옹 함대를 물리친 것을 환영하는 마음에 쓴 곡이지요. 승리의 기쁨, 정세에 대한 불안함을 담고 있어요. 현재 불안한 상황에 놓인 군산이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두 곡을 선보이려 합니다.”

김 상임지휘자는 시민들이 ‘저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라는 마음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군산시립합창단을 응원해준다면 상임지휘자로서, 음악인으로서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음악을 지향한다. 합창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군산시립합창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오세진 사무국장



전북에 생문동이 창설된 것은 지난 2012년도. 도내 14개 시군의 참여와 더불어 군산의 경우 '장르간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창작(예술성),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시민성), 생활문화관련 군산의 새로움 만들기(지역성)를 표방한 가운데 8개 분과 164개 단체가 가입되어 약 2,700여명의 동호인을 거느리고 있다.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동호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공모전에 지원하면 시와 공동으로 심사하여 가입이 결정된다. 가입이 결정되면 행사에 필요한 천막과 음향장비 등의 하드웨어가 지원되며 통기타의 경우 감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입된 동호회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가운데서도 음악과 국악, 무용 등이 대세를 이루는 편이다.



넘치는 끼, 즐거운 공동체 (사)군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오세진 사무국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 및 구성원 간의 관계와 소통을 넓히며, 개인의 행복과 삶의 격을 높이는 취지로 지난 2012년도 태동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생문동)가 어느덧 9년차를 맞고 있다. 지난 2016년도 생문동에 몸담아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오세진 사무국장은 역사 전공자로서 전주문화재단 문화기획팀에서 근무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기획전문가로 그녀로부터 생문동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 이야기를 들어본다.





동호회 간 정보교류 및 협업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촉진하며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군산 생문동은 해마다 동호회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사업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6년도엔 그 해를 'Amateur Contents Trend 생문동'으로 정하고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에 힘썼고, 2017년도엔 이를 실행하고자 '생활문화콘텐츠 제작소'로 정하면서 단짠단짠 콜라보레이션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단짠동호회와 서로 협력하는 상생방안을 만들어 보급에 힘쓰기도 했으며 2018년도엔 '빈티지 생문동-오래되어도 가치 있는 생문동이 성숙하여 최고의 활동으로 만드는 해'로 정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킨바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한 큰 변화는 '우리'라는 단어로 공동체가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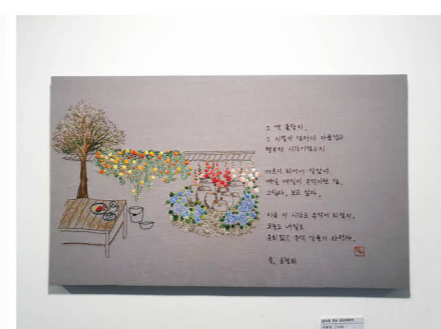
그간 '나' '내꺼' '나만의 활동'으로 개별화 돼 있던 것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 같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공동체 회복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부합한 것이어서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장르가 같은 동호회의 간극을 줄이고자 분과별 활성화 프로젝트를 개발함으로써 음악, 국악, 무용, 사진, 공예, 미술분과의 연합발표회를 구성, 상생하는 모습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즐기는 동호회가 많아진 것 역시 큰 성과로 여긴다.





시군마다 결성된 생문동은 해당 지역축제 참여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지역 간 교류 행사도 펼친다. 예컨대 서울의 전국생활문화축제, 순창의 장류축제, 남원의 난타전, 김제의 노래교실페스티벌, 완주의 대문산축제와 전통놀이 축제, 진안의 인삼축제, 임실의 치즈축제 등이 대표적이데 군산의 경우 2016년도 락페스티벌을 가진바 있고 매년 8월 하순경 은파물빛다리축제를 비롯하여 타 지역 축제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작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가진 익산중앙체육공원 도내 생문동 페스티벌의 경우 '동호인들이 스스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가는 축제'로서 타 지역 동호인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혔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 생문동에서는 10팀이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기도 했다.





군산의 경우 행사장소로는 대체로 원도심 일원이 선호되고 있으며 2019년도 마지막 행사로 금광동 '여인숙'에서 '손으로 짓는 군산이야기'라는 주제로 퀼트와 자수전이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탁류, 벚꽃, 은파, 수시탑, 짬보선창, 삼일만세운동100주년기념관 등 군산의 인문학적 요소를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서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또한 2020년도에는 근대역사박물관에서 10,000여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겸한 '전북생문동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군산시 구영6길19(2F)
 063-446-7991



지난해 군산 생문동의 활동 내역을 들여다보면 '아리울빅밴드'의 생활문화예술 벚꽃 대향연, '어울림사우회와 줌인찰각동호회'의 무료사진촬영 및 인화프로그램 운용, '온누리 드럼동호회'의 두드럼으로 군산에 활력을, 행사를 비롯하여 '아마추어 직장인밴드'들의 은파수변무대행사, '청소년극단'의 시민예술촌 공연, '수시탑밴드'의 은파수변무대공연, 연극분과 '적토마'의 TRUE WEST공연 등등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진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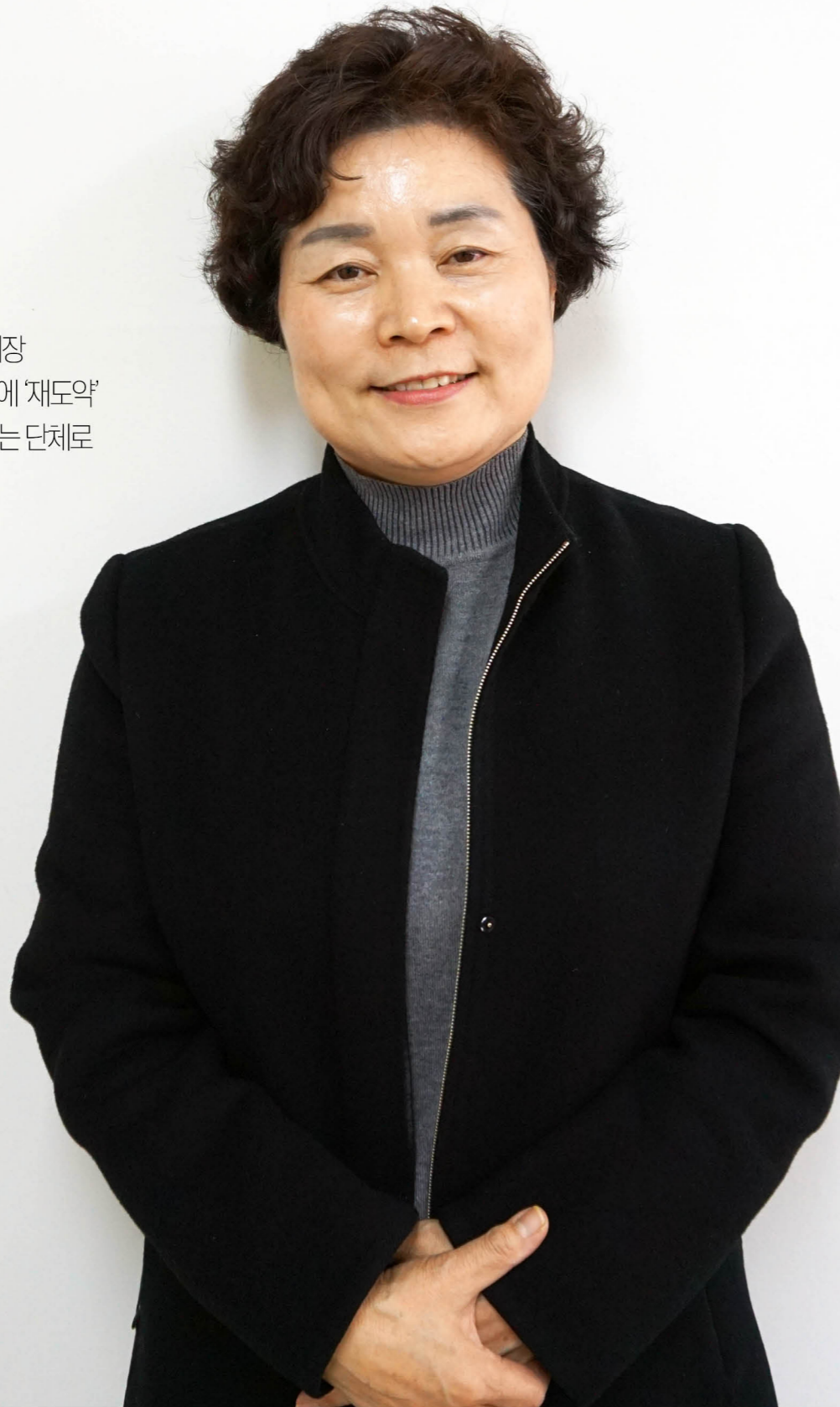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생문동이 추구하는 방향은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서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고 활성화시킴으로서 특정 예술 장르의 기능 습득과 숙련이라는 목적 외에도 지금보다 나은, 아름다운 지역과 사회를 스스로 함께 가꾼다는 가치 지향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군산YWCA 이미순 회장
창립총회 열고 8년 만에 재도약
기독교인의 사명 다하는 단체로
심기일전

글 | 김혜진(편집위원)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누구나 살면서 기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거쳐 옵니다. 저 역시 군산YWCA에 있으면서 좋은 일, 힘든 일들을 겪었어요. 기도와 회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도약하려 합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했고,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군산YWCA는 1951년 창립해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군산YWCA 이미순 회장은 37년간 이곳의 실무자로 일했다. 우여곡절도 많이 겪고, 산적한 일이 많기에 고민도 많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희망도 있다.

“군산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여자기독교청년회인 이곳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최근 해지총회를 겪고 다시 창립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이에요.”





군산YWCA와 인연을 맺다

크리스천인 이미순 회장은 1983년 대학 졸업 후 YWCA 간사로 5년을 지냈다.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에게 군산YWCA를 추천받았다. 경제적인 이유보다 일을 통해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 회장은 YWCA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만나 보니 대화가 잘 통하고 사람이 좋았다. 그리고 같은 교인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연애시절 한 살 연하인 남편이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건넸고, 나이로 인해 망설였지만 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1988년 결혼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뒤 다시 YWCA의 부름을 받아 사무총장으로 7년을 지냈다. 이 회장은 “지금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산다”며 웃었다.



군산 YWCA에서의 추억

이미순 회장과 군산YWCA와의 인연은 햇수로 37년째를 맞았다. 사회 초년생 시절 간사로 시작해 사무총장, 회장까지 이미순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내 온 흔적들이 가득하다.

“아나바다 활동을 통해 근검절약을 배운 것이 기억에 남아요. 찬양을 부르는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장학금 조성을 위해 직접 울외장아찌를 담가 연합회에서 일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에 판매했어요. 판매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조성 한 셈이지요.”

YWCA는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약자로 한글로는 '여자기독교청년회'로 표기한다. YWCA 정체성은 청년운동(Young), 여성운동(Women), 기독교운동(Christian), 회원운동(Association), 국제운동 등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청년성에 기반한 시민운동(Y), 여성 지도력과 인권향상 운동(M),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기독교 운동(C), 회원들의 자치적이고 자발적인 운동(A)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이 회장은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내실 있는 단체로 YWCA 정신을 굳건히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에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신앙인으로서 군산YWCA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는 곳이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YWCA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미순 회장. 내실 있는 단체의 운영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창립,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회장의 활동 가치는 '신앙'이다. 그녀는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했다. 군산YWCA는 지난 11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012년 해지총회 후 8년만의 행보다. 이 회장은 “앞으로 YWCA는 순수 시민단체의 역할로 방향을 선회하려 한다”고 전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겠다는 각오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창립총회를 통해 첫 걸음을 떼는 마음으로 다시 움직이려 해요. 앞으로 군산YWCA는 지역여성 문제에 관한 사업과 연구 및 제반활동 등 올바른 여성운동을 해 나갈 거예요.”





김덕신 작가



폐신문지로 만들어진 시계

아름다운 예술로 부활한 생활폐기물

그린아트실천연구소
김덕신 작가의 '섬(島)섬(島)옥수전'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1층의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업사이클링 김덕신 작가의 '섬섬옥수' 전시회가 열렸다. 섬섬옥수라 명명한 것은 옥같이 맑은 바닷물의 섬마을 아이들과 같이 하는 전시이기 때문이다. 김 작가로서는 처음 갖는 전시회이고 박물관 측에서도 이런 전시회 유치는 최초여서 관심을 끌었는데 전시 첫날 오프닝 행사에는 많은 하객이 참석, 축사와 격려사, 시낭송,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사샤 부부가 축하 연주를 해주는 등 성황을 이뤘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생활 쓰레기인 폐기물을 이용한 정크아트의 전시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작가마다 다른 개성만큼이나 장르도 다양하다. 김덕신 작가는 주로 플라스틱병과 스티로폼, 폐신문지 등을 활용하는데 쓰레기로 버려짐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그것들에 숨결을 불어넣어 전혀 다른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킴으로써 놀라움을 준다.



좌측부터 사회자 윤신애, 임해주(아미도초-6),
임해인(아미도초-2),
김덕신 작가, 김경주(비안도초-5)

본래 미술을 전공한 김 작가는 약 20여 년 전부터 학교 외래 강사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출강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비안도와 아미도 초등학교 미술 수업을 맡아 진행 중인데 이번의 전시 일부도 그 학생들과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다. 김 작가의 실력은 고창과 충남 보령에서의 수업 신청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모 복지시설에서까지 강의 신청이 들어 올 정도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전교생이라 봤자 5학년 김경주 양 한명 뿐인 비안도초등학교와 임해인(여/2학년), 임해주(남/6학년)남매 뿐인 아미도초등학교의 수업은 섬마을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김 작가는 섬 아이들에게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려주고 생활 폐기물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그것들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에 보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아미도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들과 군산대 미대생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학교 담장을 캔버스 삼아 멋진 벽화로 채워 넣음으로써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 작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다. 하루 종일 논두렁 진흙으로 온갖 것을 만들어 전시하며 해지는 줄 모르고 놀기 일쑤였다. 오죽했으면 '논두렁 밑 얘기(올챙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미대에 진학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졸업 후에도 퀼트, 점토, 자수, 뜨개질, 천연 염색 등을 공부하며 예술의 폭을 넓혀 나갔다. 사회, 환경, 자원, 세계 이슈 등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그 무렵부터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사샤와 떠나 부부의 축하연주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환경문제였는데 4차혁명시대로 진입하여 급격한 삶의 패턴 변화를 맞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빠르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서 파생되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오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쓰기 편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는 그 수량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양산되어 거꾸로 인간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자연 상태에서 그것들이 분해되는 데에는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대로라면 선조들이 무차별적으로 버린 쓰레기를 후손들이 떠안아야 되는 꼴이다.

어차피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을 재활용(Up Cy-cling)할 수 있다면 환경 폐해도 줄이면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김 작가는 예술로써 본격적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고자 '그린아트실천연구회'를 설립했다. 연구회의 정체성과 추진 방향을 그녀는 아래와 같이 들려주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문호는 개방되어 있는 만큼 적극 동참을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가장 기본 단위부터 살피며, 생활쓰레기 최소화 위한 재활용 및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업-사이클링을 습관화 한다.

- 환경, 재료, 감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소재를 보다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작품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술의 즐거움과 다양성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생활 속 예술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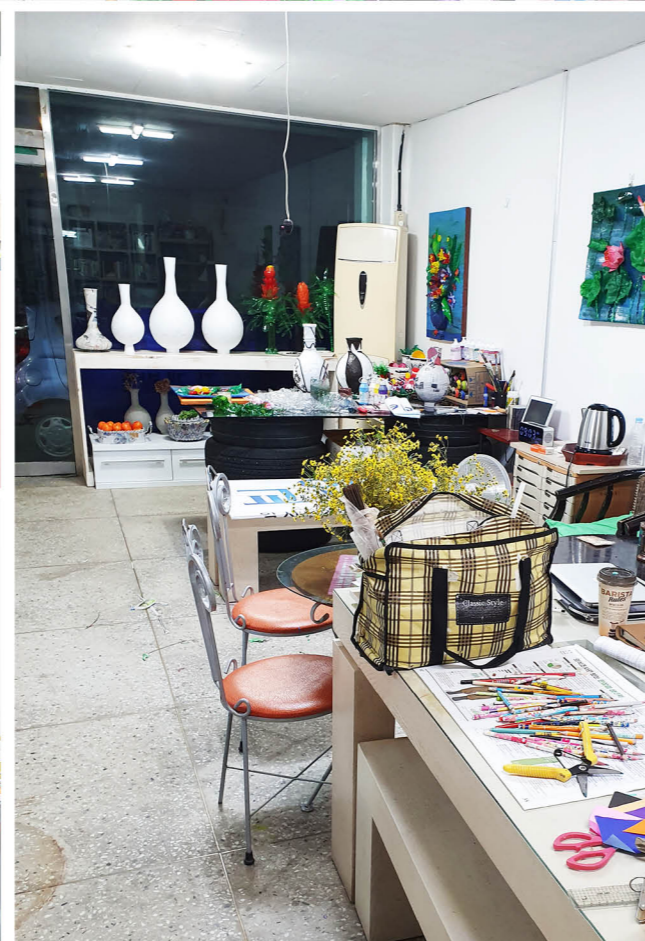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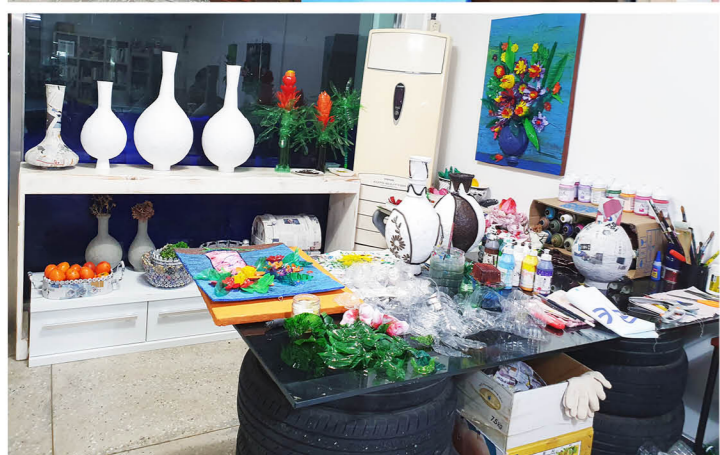
- 미술을 통해 감사의 마음, 배려의 태도, 존중의 언어들을 끌어내어 서로 협력,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배려심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인관계에서의 태도와 언어예절 등을 일깨운다.

- 예술적 사고와 다양한 체험, 연상과 상상을 통한 창의적 발상, 소통과 공유가 주는 충만한 느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건설적인 세계관을 심어 준다.

따라서 일상의 삶을 예술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다면 소박한 것에서도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주도적인 삶과 미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김 작가의 생각인데 그래서일까, 이번의 섬섬옥수전을 감상한 관객들은 하나같이 찬사 일색이다.



작업실에서의 김작가



모란과 목련, 연꽃, 화병, 문갑, 등대, 개구리, 장승, 벽시계 등 하나같이 아름다운 형태와 색깔로 변한 그 작품들이 쓰고 버린 페트병과 스티로폼, 신문지를 비롯하여 섬에서 주운 예쁜 자갈 등을 자르고 붙이고 하여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멋졌기 때문일 게다. 더구나 천 진난만한 섬마을 어린이들과 공동작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의 의미도 크다.

전시를 앞두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곤함도 있고 때로는 새벽까지 작품 준비에 몰두할 때의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에서 대단한 집념과 열정을 보여준 김 작가, 벌써부터 이번의 전시를 경험으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는데 그녀의 이 열정이 우리사회가 환경문제에 관하여 좀 더 전향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작가 약력

-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동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 현대미술대전 특선
- 승산미술대전 특선
- 전북미술대전 입선2회
- 내포현대미술대전 초대전
- 프랑스 파리/서울시립미술관 협동전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개인전

해양환경 오염 절감, 양식장용 김발 세척장치 특허

'동명·특수알곤용접' 남궁 일선 대표

글 | 장인수(편집위원)
새군산신문 부국장
lsj1453@nate.com



새로운 사업의 시작 '어민과 함께'

지역내 특수용접 중견 업체 대표가 김 양식장내 무기산의 사용량을 현저히 줄여 해양 환경오염을 줄이고 김 생산량을 증대시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장용 김발 세척장치'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군산시 동팔마길 옛 팔마제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특수알곤용접 남궁 일선 대표다.

남궁 대표는 지난 1995년 경장동에서 철골구조물과 산업 배관으로 지역에서는 꽤나 큰 사업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수년동안 사업끝에 남은 것은 스트레스였다. 사람을 쓰는 일이 다반사인 배관설비사업을 운영하다보니 현장 인력은 매번 말썽을 일으키기가 일수였고 공사 후 수금문제 또한 남궁 대표에게는 해가 갈수록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다. 결국은 남궁 대표는 몇 년간의 사업을 정리하고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오랜 동안 용접일을 해 오다보니 에피소드도 많다. 사업장 인근을 오가던 어르신들이 고장난 휠체어나 구멍난 냄비에 이어 심지어는 들통에 밥통까지 들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후덕한 인상에서 드러나 듯 남궁 대표는 이들 어르신들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반겼다. 물론 모든 수선료는 무료였다.



어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일'

현 장소로 이전한 이후 남궁 대표는 주로 어민들을 상대로 어구나 어선용 스텐용품 제작과 해상용 특수용접에 집중하며 사업을 키워왔다.

바닷가 일이라는 것이 무릇 그렇듯 매번 어민들과 부딪쳐 하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민들의 사정과 어려움을 보아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수년 동안 꾸준히 어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남궁 대표에게 친구와 형제 같은 어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았다.

이들이 하나같이 하소연하는 것은 소형어선이나 선외기의 프로펠러의 잦은 고장, 프로펠러에 장착된 고무패킹은 몇 년을 사용하다 보면 쉬이 망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고무패킹 교환으로는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패킹이 아니라 프로펠러 전체를 교환해야 하다 보니 한번 수리하려면 수백여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어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고민 끝에 남궁 대표는 프로펠러를 고무패킹 교환 없이 허브형으로 개조하는 데 성공했다. 어민들로서는 고무패킹 달거나 찢어지면 새 프로펠러로 교환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지게 된 것.

이어 남궁 대표는 어민소득증대는 물론 무분별한 무기염산 사용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일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개발 연구에 들어갔다.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이 김 생산을 위해 설치한 김발에 묻은 파래나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을 과대 사용하거나 김발 세척을 위해 고압호스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사람의 힘으로 일일이 씻어내야하는 불편함과 고된 노동을 줄일 수 없을 까 해서였다.

이후 남궁대표는 1년여의 연구끝에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된 양식장용 김발 세척 장치를 만들어 냈다. 양식장 관리 어선에 장착해 장치로 김발을 통과시키고 그 위에 고정된 스테인레스로 된 가늘고 긴 파이프를 통해 고압의 바닷물이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사용할 경우 하루 6~7명이 3일 정도 작업할 양을 3~4시간이면 충분할 뿐 아니라 세척을 위한 염산 사용량도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어 해양환경오염도 줄이고 김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궁 대표는 올해 초 특허청으로부터 장치와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취득 했다.



내년 봄, 수산식품박람회 통해 시장 공략

현재 남궁 대표가 특허 출원한 김발 세척기는 전남 진도와 완도 어민들 사이에서는 인기 폭발이라고 한다.

남궁 대표의 세척기를 사용해 본 군산 지역 어민들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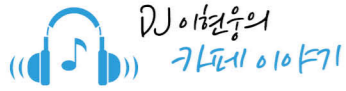
남궁 대표는 내년 봄에 열리는 수산식품 박람회에 매년 정월보름에 열리는 김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시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특허 출원중인 세척기를 한 단계 진일보한 장치로 개선해,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시제품과 함께 전시해 전국 김양식장 어민들 공략에도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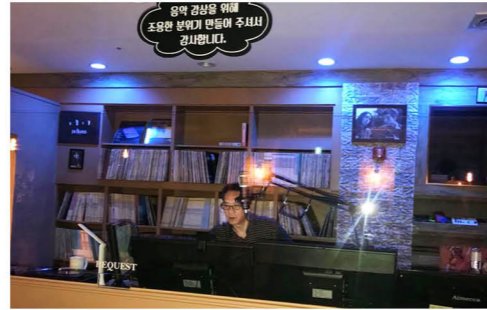
남궁 대표는 김발 세척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소 염산 살포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어 과도한 염산 사용으로 인한 어장환경 파괴는 물론 양질의김 생산량 증가로 어민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동명 특수알곤용접
전북 군산시 동팔마길 15
063-446-1716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은'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슬픈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퀸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퀸'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혼자 남은 밤 <마음상담소>가장으로 산다는 것

문득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캄캄한 밤인데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생각에 울컥할 때가 있었나요? 몸이 아픈데도 곁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으로 서러운 적이 있었는지요?

철우 씨의 집과 가족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는 군산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합니다.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명퇴 대신 군산행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가족을 보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이번 주는 가지 못했습니다. 지독한 감기 몸살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랑 지은이가 내려오면 안 될까?"

주말이 가까워오는 데도 차도가 없어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는 것도 거의 없어 몸은 기진맥진하고 도저히 서울까지 갈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딸과 함께 음악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음악회 가는 것을 취소하거나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철우 씨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철우씨는 입맛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토요일 저녁,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육여널듯 밥을 먹는데 괜스레 처량하고 서글픈 생각이 밀려옵니다. 온몸은 흥신 두들겨 맞은 듯 뼈마디까지 아픕니다. 약기운 탓인지, 감기 몸살로 인한 것인지 몽롱한 느낌과 함께 잠이 밀려옵니다.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철우 씨는 아내와 딸이 있는 서울 집이라고 착각합니다. 몇 시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고서야 혼자임을 알아차립니다.

온몸은 땀범벅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여명의 하늘이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전에 없던 감정의 덩어리가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을 치밀고 올라오는 그것은 목울대를 지나 눈시울에까지 이릅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방금 본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일찍부터 가정의 역할을 해야 했던 때부터,

삼십 수년 동안 짊어져야 했던 고단함의 무게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졸의 학력으로 견뎌야 했던 고충의 시간도 떠오릅니다. 은근하면서도 치졸한 무시와 차별을 견디게 해 준 것은 아내와 딸을 향한 가정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독한 장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대장포진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한 번 하지 않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주 찾아온 위경련으로 바닥을 뒹굴면서도 일만 했습니다. 나중 예야 담석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담낭 제거 수술을 했을 때에도 병원의 권고와 상관없이 이를 만에 퇴원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대요. 음악도 안 듣고 연극도 안 보고 책도 안 읽는 사람이라고요." 언젠가 카페를 찾은 철우 씨가 한숨과 함께 한 말입니다.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어렸을 땐 혼자 살아내느라 그랬고 결혼해서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새가 없었죠."

철우 씨라고 해서 음악 듣고 책 읽는 일이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음악에 마음을 온통 뺏긴 적도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선물 받은 책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우 씨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생활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적어도 딸아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써온 것이 가족과는 다른 취향의 사람으로 간주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 동료들과 갔었던 음악 감상 카페가 생각났습니다. 음악이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던 카페 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새벽임을 알고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이라는 말에 마음을 멈춰세웁니다.

- 사장님, 지금 카페 문 안 열었죠?ㅋㅋ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웃음이 납니다. 답을 기대하고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을 뿐입니다.

- ㅎㅎㅎ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찌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요? 주말인데 서울 안 가셨어요?

철우 씨는 깜짝 놀랍니다. 몇 분 만에 카페 주인으로부터 답장이 온 겁니다. 더욱이 딱 한 번 갔을 뿐인데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기억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 몸살이 심해서 못 갔습니다. - 저런...ㅠㅠ 병원엔 다녀오셨고요? 식

사는 제대로 챙겨드셨나 모르겠네요. 사모님도 내려오시지 못할 상황이었나 봐요.

카페 주인의 메시지에 울컥하고 맙니다. 두 사람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단 한 번 만난 사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여러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문득 '카페 해 먹기 참 힘들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사과를 합니다.

-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행히 제가 깨어 있어 바로 답변드릴 수 있었어요. 혹시 듣고 싶은 음악은 없나요?

- 슬픈 음악요.

- 아...

- 음악 들으면서 실컷 울고 싶네요. 맘껏 울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런 음악 있나요? ㅎㅎ

- 글썽요. 그렇게 실컷 우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곡 올려드려 볼게요. 메시지 창에 올려진 곡은 이십 수년 전에 사망한 가수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노래가 방 안을 휘감고 돌더니 철우 씨의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철우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슴푸레한 여명의 빛깔이 창문을 넘어와 몸을 감싸는 순간 철우 씨는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노랫말 때문인지 가수의 음색 때문인지 푸른 새벽 빛깔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오면서 견뎌야만 했던 고단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가정으로서의 무게 때문만도 아니었을 겁니다.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쓸쓸함 때문에 그토록 눈물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철우

씨는 카페 주인이 선곡해준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숙명일 뿐인 가정의 역할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져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낸 내 모습
하얀 별 나를 비춰주네
불빛 하나 돌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멀어져 가며 눈물
그 위로 떨어지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 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 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거리를 거닐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져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낸 내 모습
하얀 별 나를 비춰주네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 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 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르자
삶에 가득 여러 송이 희망을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https://youtu.be/_RdHaYZ6Zrw (끝)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황교안의 황제단식(斷食)

정치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야당 정치인들이 항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간혹 단식을 실행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하다 급기야 병원으로 후송됐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단식을 중단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으나 단식 이틀만인 11월 22일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러한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를 맞고 단식을 시작해 '황제단식', 당사무처 근무자 배정 등으로 인해 '갑질단식'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단식을 이어갔다. 더욱이 국민을 위한 단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 등 당 안팎에서 모두 공감을 얻지 못했다.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에 67.3%가 응답해 단식투쟁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식은 체중 감량이나 건강상의 목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종교적,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져왔다. 정해진 기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단식하는 것은 주요 종교들의 특징이며, 정치적으로는 항거나 단합의 표현으로서도 행해져왔다.

과거 천정배(25일), 정청래(24일), 김영삼(23일), 서청원(21일), 김대중(13일), 이재명(11일), 문재인(10일), 김성태(9일), 이정현(7일)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사안에 따라 단식투쟁을 했다. 세월호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경우에는 46일로 최장기간 단식을 한 기록도 있다.

이들의 단식 이유는 각기 달랐다. 그러나 '황제단식'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가면서까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소미아 파기 문제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하고,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그나마 이런류의 항의와 투쟁이 먹힐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유예를 결정한 마당에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입장을 바꿀 명분이 없다. 적어도 야당대표가 무언가를 할 때는 그것으로 상황이 충분히 호전되거나 변화할 여지가 있을 때를 보고 해야 하는데 황 대표의 단식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속내는 자신을 겨냥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라는 게 많은 이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래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단식 목적은 항거의 의미지만 단식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과 선의가 있어야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다. 나와 다른 입장이나 방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전 군산시의회 의원
이복

합법과 불법

여러 종편 채널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방송사를 옮겨 다니며 시사전문가를 자처하는 패널들을 본다.

그들은 대부분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편은 옹호하고 상대방은 신랄하게 비판한다.

정권이 바뀌고 서로의 입장이 변해서 과거 자신들이 옹호하던 상황을 비난하고, 그와 반대로 비난하던 상황을 옹호하느라 때로는 격한 감정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하던 상대가 하던 로맨스는 로맨스요 불륜은 불륜 인 것이다. 그것을 서로가 잘 알면서도 굳이 상대의 로맨스를 불륜이라고 우겨대고, 나의 불륜을 로맨스라고 고집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적어도 식자층이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언행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권에서 불법이라며 법대로 처벌하라고 주장하던 일들을 이제 자신들이 더 크게 위반하면서도 조사받으려면 그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거품을 문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들은 그들의 편을 들어준다.

자신들의 논리에도 모순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펴고 출연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면 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그것을 보고 듣는 시청자들이 자신들보다 무식해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고 설득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말기를 바란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한 자들을 할 수없이 조사하고 합법이라며 풀어주고 합법적인 사람을 잡아다가 불법을 행했다고 벌을 주는 사람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처벌하고 죄 있는 것 알면서도 풀어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행동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불법을 합법으로 합리화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불법을 저지르며 합법이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 합법적인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소시민들의 분노를 쌓아간다.

합법은 누가 봐도 합법이고, 불법은 누가 봐도 불법이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에선 2019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군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다가오는 2020년을 맞이하여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올해 2019년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자가 부동산업계에 입문한지도 제법 되어(구력) 부동산 시장의 활황기와 위기 등의 순환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금년처럼 이리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본적이 없었기에 그 터널이 이리도 어둡고, 길고, 습하고, 추운 줄 미처 몰랐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주택(여기서는 일반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를 지칭함)의 시장 변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결정짓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경험으로 인지 할 수 있다.

12월 현재 군산의 아파트 시장을 보면 일단 쌓였던 전세물량이 점차적으로 소진되어지는 추세이다. 적재되었던 전세가 소진된다는 것은 전세를 찾는 수요층이 증가 한다는 뜻이며 전세를 찾는 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구가 유출되지 아니하고 총 270,727명(남 136,726명, 여 134,001명,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감소추세가 멈추었으며 아파트 시장가도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변곡점이 보여 지는 추세이다.

또한 향후 군산 경기에 향방을 주는 여러 가지 굵직한 테마를 보면, MS그룹 컨소시엄이 한국 GM 군산 공장을 인수하여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후 군산형 일자리 창출 등이 가시화 되고 2021년 1월에 첫 번째 차종을 생산하고, 추가 투자 유치와 연구개발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차종을 순차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간 최대 15만대를 만들 계획에 있으므로 고용 규모가 다소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예 10조원 투입이 확정되어 대통령까지 행 시장에 방문하여 축하해 주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와 GM의 철수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2천억원이 투입되어 서민 경제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인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와 선박 수주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면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지지개를 펴고 있다. 또한 세계 조선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20년 단위로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15일에 치러진다.

이와 같이 굵직한 사안들이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최대치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몇 년 동안 침체기 일로를 걷고 있던 군산 부동산 경기는 분명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그에 편승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부동산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독자들도 각각 본인이 잘 아는 부동산 종류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본인이 잘 아는 지역과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위험도가 낮아진다.

준비가 되지 아니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빈번하게 발걸음을 옮겨 보라!

군산의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긴 어둠의 터널을 묵묵히 감내하며 견뎌내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활기찬 군산의 부동산 경기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제시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모르면 끊임없이 질문하고 같이 고민하는 공인중개사를 찾아라.

여러분 주위에는 예전의 복덕방이나 노인네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력과 실력을 갖춘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고 그들과 내일을 같이 준비하시라.

끝으로 필자는 작금의 군산 시장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복구자비필교” 오래 얽드려 있던 새가 반드시 높이 난다.

높이 비상하는 군산 시민이 되어보자.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마부위침(磨斧爲針) 새만금

마부위침(磨斧爲針)이란 말은 당나라 이백(李白)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백(李白)이 부친의 주선으로 상의산(象宜山)에 들어가서 글공부를 하던 중, 공부에 싫증이 나서 스승 몰래 산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 산 아래 계곡을 흐르는 냇가에서 한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를 계속 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백은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그렇게 큰 도끼를 갈아서 과연 가늘 디 가는 바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한다면 바늘이 되지 않겠나?”

이백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산으로 올라 수학열심히 해서 훗날 ‘시의 신선(詩仙)’이라는 별칭을 갖을 정도의 학문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개발에 관한 회의(2019. 11. 27 제22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동서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고, 신시도에 자연휴양림이 설립이 되고 재생에너지 첫 사업으로 200MW급 태양광발전시설도 설치 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도 조성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수변도시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호텔 사업과 MICE사업 등을 활성화 시키고 새만금을 스마트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회의를 진행 했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지 어언 30년 새만금 방조제와 일부 구간의 산업용지 조성 그리고 동서도로연결 사업, 고군산도로연결 등 이미 이루어 낸 일도 많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수많은 밑그림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도 의결되어 2024년부터 7,800여억원을 들여 2028년에 무안공항 정도의 규모로 완공한다는 계획도 발표되고, 우리 시민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새만금에 무슨 일이 생기나 하는 관심이 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그 이름과 시작은 창대하나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이태백(李太白)이 살았던 당나라 때는 8세기인데, 8세기의 과학기술로도 마부위침을 하는 것이 우수한 일이 였겠지만, 그 당시 마부위침(磨斧爲針)의 마음가짐으로 학문을 완성했던 이 태백을 생각하며, 새만금 개발도 내일 당장 이루지 못할 일이라면, 하루 하루 시나브로 그 속도는 더디지만 훗날 아름다운 사업으로 남을 수 있게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시민들은 당장 내일 새만금이 어떻게 되리라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세계 제일의 수변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경자년 한해도 새만금이 변화하는 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군산시민예술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쩌다 예술' 성황리에 마무리

군산시민예술촌(총장 박양기)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어쩌다 예술'을 진행하였으며 12월 7일(토) 오후2시 수강생 발표회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어쩌다 예술'은 성인 대상 8개 강좌, 청소년 대상 3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시민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 개발 및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와 창의성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좌는 음악(정다운 가곡 부르기, 청춘동요교실), 전통(민요에서 판소리, 신명나는 장구, 건강(힐링요가), 문학(시·수필, 시낭송), 방송(아나운서처럼 말하기), 청소년(탈춤, 날아라 색소폰, 말하는 몸, 춤추는 몸)으로 강좌를 진행하였다

수강생 발표회는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0개월간 수강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한발 더 문화예술에 가까워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게스트 공연으로 군산시민예술촌 동아리 오히나 우쿨라이어, 청소년 댄스 동아리 청춘, 달하의 공연이 예정되어있으며 특별 게스트로 트리플제이가 출연할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촌으로 거듭나겠다" 말했다.

www.gsartzone.kr

2019. 9-12월 10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참여자들의 마무리 발표회

2019 어쩌다 예술

Accidentally Art

2019. 12.7(토) 오후2시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

www.gsartzone.kr

2019 어쩌다 예술

프로그램 순서

시도·아나운서·박수영

공연 2중 공연장

01. Oh!hana 우쿨라이어 장미 백아담
02. 정다운 가곡 쉽게 알고 부르기 장미 오현영
03. 탈춤 장미 조은아
04. 날아라 색소폰 장미 조상익
05. 민요에서 판소리 장미 김 옥
06. 청소년 댄스 동아리 (청춘) 장미 정예민
07. 시낭송 장미 권수복
08. 청춘동요교실 장미 박동순
09. 신명나는 장구 장미 진민정
10. 탈춤2 장미 조은아
11. 청소년 댄스 동아리 (달하) 장미 정예민
12. 게스트 공연 트리플제이

전시 3중 공연장

시·수필 창작반 장미 박규환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초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논의의 장 2019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알지' 열려

참여포럼이 끝나고 평가회의를 진행하는 시간이었다. 각자 이번 청소년 제안 정책 모니터링 과정과 참여포럼 당일 행사에 대해 소감을 말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와 위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글로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이야기, 분과 활동을 하며 버겁다 느낄 때 쯤 분과원들의 참여가 있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던 활동이라고 말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임을 하면서 다들 무언가를 배워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배워가고 알게되니 좀 더 군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커졌다고 할까요?”



청소년 참여포럼추진위원회 청소년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구 용역의 시행', '청소년 인권전담기구의 운영', '교육 혁신지구 등 청소년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과정의 추진', '청년 창업센터의 청소년 대상 확대' 등의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했다.

청소년참여포럼은 2015년도부터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 활동으로 시작해 분과별로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수년간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지난 민선7기 선거 전후로 군산시장후보자와 인터뷰와 토론회를 지속해 정책들이 시장 공약 정책에 다수 반영되기도 했다.

올해 달그락 청소년들은 그렇게 제안한 정책들과 관련하여 점검 활동을 기획 운영 했다. 인권참여, 문화, 경제, 복지안전, 교육진로 분과로 나누어 관련 관계자 인터뷰, 실태조사, 현장답사 등을 진행했다. 10월 군산시장 아동청소년과 간담회

에서는 '민선 7기 청소년 정책 공약사업 질의 답변서'를 공유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답을 통해 정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다. 11월에는 군산교육장 간담회를 가져 군산 교육 정책 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렇게 점검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함께 확인하고 보완점, 발전 방향을 함께 토론하고자 했다.

2019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청소년 정책모니터링 과정을 발표한 유호형, 김태빈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곳에 모인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정책도, 정치도 말이죠. 아는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친구관계 정도에 머물렀던 노력과 관심이 사회로 확장하는 계기였죠, 나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해요. 계속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같이 행복하려면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니까요.”

11월 19일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는 2019 달그락 청소년 참여포럼 '알지' 지역변화: 지역사회를 알아가며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변화를 이

룬다'가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군산시장, 군산교육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친화마을 구축과정안내, 달그락 청소년들의 제안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시 행정, 시의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청소년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보장을 위한 민관 협치 방안을 토의했다.

당일 참석한 강임준 군산시장과 박일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군산 교육 발전은 시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청소년 당사자의 정책 논의 과정을 꾸준히 만들겠다는 제안을 말했다.

김주홍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조경수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지원위원장, 배형원 군산시의회 의원은 토론 시간에 '청소년 참여예산의 실질적 운영으로 청소년 예산 확대', '공교육 한계를 현장 체험형으로 지역사회에서 보완해 나가야 함', '포도폴리오식 면접형 장학금 제도 신설' 등의 제안을 민관 협치 방안으로 말했다.

윤정선 청소년 3년째 추진위 활동과 참여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3회째 참여포럼과 정책참여 활동에 참여해보니 직접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진짜 되고 있었다. 청소년들도, 시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믿게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행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 군산시 국립전북과학관 유치 본격 나서

25일 군산대 링크사업단과 군산 건립 세미나 개최

군산시와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는 11월 25일 오후 5시 군산대 산학협력단 이노테크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립전북과학관 군산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제4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2019년~2023년)에 담겨진 국립과학관 건립 계획에 의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립과학관 유치를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금암동 73-3번지 내 5,656㎡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14만 4천㎡ 중앙동 도시재생지구내 총 3만여㎡ 부지를 대상으로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유수창 전국생활과학고실 협의회장의 기조발표, 군산대 김동익 링크사업단 단장, 고승기·곽장근·김동진·송석기·이장호·유현희 교수, 조선대 박영신교수, 호원대 장병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세미나는 역사적·지리적 당위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방안, 생활과학관·관광명소화 방안,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등 분야별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국가와 지역균형발전, 과학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산업고용유기지역 지원 등 군산 건립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융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전북도와 과기부에 전달하고 반드시 군산에 유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이 들어서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과천시 등 4개소가 분원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중규모의 4~5개소 국립과학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400억원 규모의 국립과학관 1개소에 대한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 확대 주거환경개선 기여

지원사업 늘리고 소규모 단지 전국 최초 통합관리

군산지역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공공의 역할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사무소 운영, 안전점검구역 시행 및 위험시설 정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확대 시행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입주주민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14년째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9개 단지에 73억원의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사업비 10억6000만원을 들여 45개 단지의 열악한 공용시설환경개선 준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 시작 이후 최대 성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노후 단지 사업시행 주기를 앞당기고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된 91개단지에 4천여세대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1개 권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150여개 단지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 소규모 단지로 관리주체가 없어 불편함은 물론 시설물 안전문제 발생이 빈번하자, 시는 지난해 2016년부터 노후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 위탁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04개 단지 256개 동에 대해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리적환경개선 및 건물수명 연장을 위한 적정 보수·보강안을 제시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위험담당 철거사업 등을 연계 실시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 강화하고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전문자문단 운영 및 우수단지 표창 등 신규 사업도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군산교육지원청, 문화 감수성 교육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배려'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은 지난 19일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자도 차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의 강사인 정철규(소속사 그루벤티)는 한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병역특례를 하며 보았던 불편한 진실들을 개그의 소재로 활용하여 사회를 풍자했고 '사장님 나빠요'라는 당대 최고의 유행어를 남겼다. 개그맨 블랑카에서 지금은 다문화 전문강사로 활동영역을 넓혀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박일관 교육장

은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을 본다면 우월함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 평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기 위해 앞으로 군산교육청은 다문화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성공구현 '박차'

컨퍼런스 통해 구체화 위한 이행방안과 향후 과제 마련

군산시가 상생형 일자리 성공적 구현을 위한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갖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9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등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일자리 노사민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최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후에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치를 강조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군산형 일자리가 이러한 모델에 가장 근접해 있어 매우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군산형 일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발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화를 위한 이행방안과 보완사항을 찾고 향후 과제를 마련해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2부 토론에서 군산대 김현철 교수(컨설팅 단장)를 좌장으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노사민정 각계 주체들과 시민과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군산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향후과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등 논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의장인 강임준 시장은 "지역경제가 아직은 힘들고 어려



운 가운데 경쟁력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희망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과 논의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상생의 의미를 더 한다면 지역경제 극복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제1회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 - 전라북도'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첫 번째 개관 특별기획전 '수탈의 기억-전라북도'展이 11월 29일부터 개최된다. '수탈의 기억-전라북도'展은 전라북도에서 자행된 정신적·물질적 수탈을 중심으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전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의 일본인사와 요배소 및 사라진 조선관아 사진을 포함해, 상해임시정부 독립공채, 창씨개명, 소작농 자료 등 200여 점의 전시되며 전라북도 내에서 자행된 수탈의 실상을 알린다. 특히 항거한 의병과 독립운동가의 유물 및 자료들이 전시되며 전라북도의 근대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특별기획전을 통해 민족말살정책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수탈의 아픔과 일본 제국주의에 강력히 저항한 우리의 역사를 비롯해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운2동, 위기가정 보호지원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절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지난 22일 아파트 12개소 관리사무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번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실직·실업이 증가하며 동절기 위기가정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장 12명이 지역문제에 함께한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관리비 장기체납자에 대해 관리협력 △지역문제를 원인에 대한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정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지원으로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석권 나운2동장은 "지역주민의 위기상황에 대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역할과 협조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 군산 예술의전당	수용자 불우가족 돕기 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V.O.S콘서트 퇴근하고 여기 어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한국서부발전과 함께 하는 군산 시민 공감 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한마당 한반도가 하나되는 대한민국 독도음악회 군산 예술의전당	이은결 더 일루션 제40회 전북성악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은결 THE ILLUSION 베스트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크리스마스 칸타타 2019 전주벨리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2	03	04	05	06	07
이은결 THE ILLUSION 베스트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제17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8	09	10	11	12	13
글로리아스트링오케스트라 & 고상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 뮤지컬 - 리틀캣 군산 예술의전당	전주시립국악단 제221회 정기연주회 유 퍼커션 정기 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전라북도립국악원 송년국악콘서트 전주시립합창단 제136회 정기연주회 16회 영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윈터 페스타 시즌2 (합합) 군산 예술의전당	윈터페스타 시즌2 (발라드) 군산 예술의전당	12월 하우스 콘서트 (국악) 제5회 흙소리청소년연희단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15	16	17	18	19	20	21
가족뮤지컬 오리지널 어린이캣 CAT 한국소리문화의전당	Winners Concert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극 하프라이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립교향악단 제135회 정기연주회 군산 예술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꿈, 사랑의 음악 여행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풀킴 투어 콘서트 '마음' 하나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17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풀킴 투어 콘서트 '마음' 제17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2	23	24	25	26	27	28
2019 호남오페라단 송년음악회 나란히 함께하는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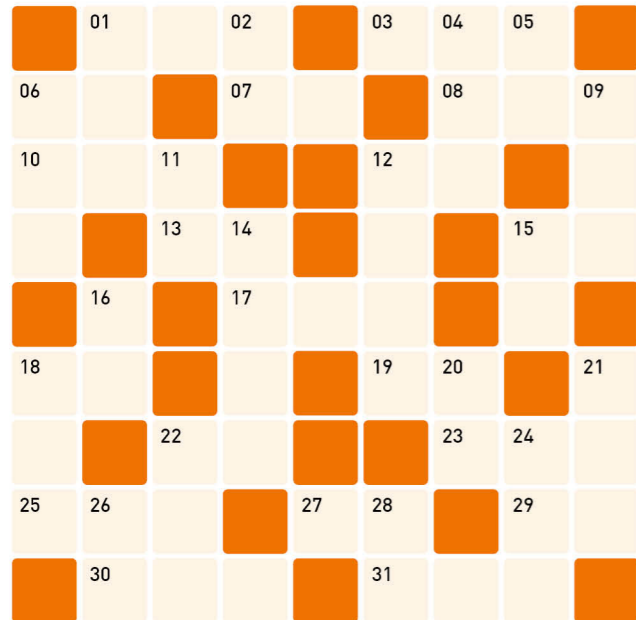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The soul of water(물의 영혼) 2019-12-02 ~ 2019-12-05	제29회 대한민국새만금 서예문화 대전 2019-12-06 ~ 2019-12-12
감정의 선 2019-12-13 ~ 2019-12-19	해외교류도시 어린이 그림 전시회 2019-12-16 ~ 2019-12-22
군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라애경 규방공예 전시회 2019-12-03~2020.02.2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12.06(금)~12.12(목) 제33회 전라북도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	
12.06(금)~12.12(목) 제38회 전라북도산업디자인협회 회원전	
12.14(토)~12.20(금) 제22회 산민목연회	
12.14(토)~02.16(일) 일렉트릭 체험놀이터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가정동)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01



<제100호 퍼즐 정답>

공	공	장	소	홍	당	무	
수		설	욕		희	귀	
처	지		조	국		고	
방	동	이		자	진	모	리
		우			자		
줄	다	리	기		자	리	끼
임			밀	랍		니	트
표	구			비	단		로
		전	야	제		초	근
							목
							피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03 나룻배 등을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 06 어떤 일이나 비용의 전부를 도맡아 하거나 부담함.
- 07 말 때문에 입게 된 화(禍).
- 08 하늘을 찌를 듯 아주 높이 솟은 고층 건물.
- 10 부안군 진서면 능가산자락에 위치한, 백제 무왕 때 창건한 큰 사찰.
- 12 6.25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한 도시.
- 13 색에 대한 감각. 색에서 받는 느낌.
- 15 세모꼴의 틀에 47개의 현을 세로로 평행하게 걸고, 두 손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 17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거나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상.
- 18 막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광. 흔히 문짝이 없이 한 면이 터져 있다.
- 1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성산별곡 등의 작품을 남긴 인물.
- 22 아주 적은 분량.
- 23 악마나 귀신을 물리쳐서 없애는 사람.
- 25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바른 종이.
- 27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 29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 30 본업 이외의 일을 하여 얻는 수입.
- 31 알프스에 위치한 영세중립국으로 시계 등 정밀공업이 발달한 나라.

▼ 세로 열쇠

- 01 일정한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 시설. 결혼○○○.
- 02 이십사절기의 하나로 소설과 동지 사이에 들며 많은 눈이 내린다는 날. 올해는 12월 7일.
- 04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로 '사기'를 완성한 인물.
- 05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 06 물을 조금도 타지 아니한 순수한 술.
- 09 산타크로스의 썰매를 끄는 동물.
- 11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가을은 ○○의 계절.
- 12 사람이려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감정.
- 14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 15 부사관 계급의 하나로 중사의 아래, 병장의 위.
- 16 두 눈썹의 사이.
- 18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
- 20 쇠뿔이.
- 21 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
- 22 방정식에서 구하려고 하는 수. 예측할 수 없는 앞일.
- 24 컴퓨터 화면에서 커서(cursor)를 이동시킬 때 손에 쥐고 사용하는 입력장치.
- 26 넉넉하고 많음.
- 28 과일이나 채소를 짜낸 즙.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small>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small>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small>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small>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상상을 넘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